

日本人으로 僞裝한 琉球人の 濟州 漂着^{*}

- 1821년 恒運 등 20명의 표착 사건 -

鄭 成 一^{**}

【국문초록】

1821년 8월 일본 사쓰마 사람들과 함께 제주에 표착한 ‘유구인’(琉球人) 20명은 자신들을 ‘일본인’(日本人)으로 위장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대마도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송환되었다. 그보다 불과 두 달 전인 6월 제주에 표착한 유구인 6명은, 조선 측에 의해 그들이 ‘유구인’임이 밝혀져서, 중국을 경유하는 ‘육로’(陸路)로 송환되었다. 이 둘은 같은 해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유구인’의 표류 사건이었지만, 조선에서 보여준 ‘유구인’의 대응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구에 표착한 조선인에 대하여 유구가 ‘일본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에 대해서만 언급해 왔다. 유구 지역으로 표류해 간 조선인 표류민을 현지 주민과 격리시키고, 조선인들에게 일본 문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본 노래나 일본인 성명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유구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였다.

그런데 1821년 8월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제주에 표착한 ‘유구인’ 20명이 일본 사쓰마 표류민으로 위장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유구와 일본 사이의 종속관계를 중국과 조선에 은폐하기 위한 유구의

* 이 글은 유구·오키나와학회와 한일관계사학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에게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광주여자대학교 콜마케팅학과 교수

정책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사례가 또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은 이른바 제주인의 출신지 위장과 비교되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조선, 제주, 유구, 일본, 쓰시마, 사쓰마, 아마키와, 아마미오시마, 표류, 표류민

◆ 차례

1. 유구인의 조선 표착
2. 사쓰마 선박에 동승한 유구인의 제주 표착
3. 제주 표착 유구인의 일본인 위장 사례
4. 유구인의 출신지 위장이 갖는 의미

1. 유구인의 조선 표착

순조 21년(1821년) 6월 15일자 실록 기사를 보면,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 6명을 육로로 북경(北京)에 호송하라고 명하였다”¹⁾는 기록이 보인다.²⁾ 이보다 5년 뒤인 1826년(순조 26) 6월 16

1) 『순조실록』 21년(1821) 6월 15일(계사).

2) 李薰, 「제5장 人的 교류를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 被虜人·漂流民을 중심으로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230쪽, <표 5>의 No.9에는 송환된 유구인이 5명으로 되어 있다. 漂着 인원은 6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였다. 아마도 이훈은 생환자가 5명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이훈은 표착지를 제주 정의현(旌義縣)으로 적고 있으나, 이것은 제주 건입포(健入浦)가 옳다고 생각한다. 同文集考(原續 漂民上國人 34)에 따르면, “1821년 5월 20일 제주목(濟州牧) 건입포(健入浦)에 생김새가 다른 배가 표착하자 역관 한석로(韓錫路) 등이 그곳에 가서 표류 경위를 묻는 문정(問情)을 하였더니, 유구국(琉球國) 대도(大島) 좌타촌(坐打村) 사람 미희부(米喜負) 등 6명이 가재(家材)를 싣고 가다가 표류하였으며, 그들이 육로 송환을 희망하여 성경(盛京) 봉황성(鳳凰城)을 경유하여 송환하였다”고 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1978,

일에는 “흥해현(興海縣 ; 興陽縣의 誤記?—필자) 외나로도(外羅老島)에 표류해 온 유구국(琉球國) 상인(商人) 3명을 육로를 따라 북경(北京)으로 호송할 것을 명하였다”³⁾는 기술이 있다.⁴⁾

이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유구인의 조선 표착이 두 번 모두 (음력) 6월 중순에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것은 여름철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즉 태풍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② 유구인이 표류해 온 지역은 1821년에는 제주, 1826년에는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에 해당하는 흥양이었다. 제주와 고흥 지역에 유구인이 표착하게 된 것은 해류와 바람 때문으로 보인다. ③ 실록에 ‘유구국(琉球國)’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조선 정부는 유구를 독립된 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선 정부는 유구인을 육로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경에서 유구국 사신에게 표류민을 인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⁵⁾

조선과 유구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적지 않다.⁶⁾ 그

『同文集考』 4, 3649~3650쪽 ;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1997,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シナ海の國際交流』, 91쪽.

3) 『순조실록』 26년(1821) 6월 16일(병인).

4) 李薰, 앞의 논문, 230쪽, <표 5>의 No.10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이들이 제주목(濟州牧)에 표착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은 오기(誤記)이다. 중국의 당안(檔案)과 유구의 歷代寶案에는 이들의 표착지가 전라도 흥양(興陽) 나로도(羅老島)로 나와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병사(病死)하여 두 명만 송환하였으며, 이들도 육로 송환을 희망하여 복건(福建)을 경유하여 돌아갔다.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앞의 보고서, 92쪽 참조.

5) 李薰, 「朝鮮後期 漂民의 송환을 통해서 본 朝鮮·琉球關係」, 『史學志』 27, 단국대학교 사학회, 1994.

6) 河宇鳳, 「朝鮮前期의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 孫承喆, 「『歷代寶案』을 통해 본 조선과 유구關係」,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간행위원회, 1995 ; 李元淳, 「『歷代寶案』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朝琉關係; 直接通交期를 中心으로」, 『國史館

가운데 조선인과 유구인의 표류·표착에 관해서는 이훈(1994), 池內敏(1995),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1998)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의 유구 표착은 1594년부터 1868년까지 34건, 유구인의 조선 표착은 1590년부터 1861년까지 15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⁷⁾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할 1821년 8월 ‘유구인’의 제주 표착 사건은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論叢』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楊秀芝, 「琉球王國의 對外關係에 관한 一考察; 朝鮮朝의 事大交隣과 관련하여」, 『韓日關係史研究』3, 한일관계사연구회, 1995 ; 池內敏 「近世朝鮮人の對日認識ノート」, 『歷史學研究』678, 1995 ; 金在勝, 「韓國, 琉球間 漂流에 의한 文化的 接觸」, 『東西史學』2, 韓國東西史學會, 1996 ;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シナ海の國際交流』, 1997 ;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歷代宝案研究』9, 沖繩縣立圖書館史料編集室, 1998 ; 糟谷政和, 「1850年代朝鮮船の琉球漂着と朝鮮通事」, 『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科論集』4, 茨城大學人文學部, 1998 ; 河政植, 「1530년 濟州漂着 琉球民 送還의 의의」, 『동양사학연구』63, 동양사학회, 1998 ;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 李薰 著, 松原孝俊·金明美 譯, 「朝鮮王朝時代後期漂民의 送還을 通じて みた 朝鮮·琉球關係」, 『歷代宝案研究』8, 沖繩縣圖書館史料編集室, 1997 ; 양수지, 『조선인이 본 15세기의 유구왕국』, 집문당, 2003 ; 德永和喜, 『薩摩藩對外交渉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2005 ; 沈玉慧, 「清代北京における朝鮮使節と琉球使節の邂逅」, 『九州大學東洋史論集』37, 九州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會, 2009 ;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 신동규, 「일본 江戸時代의 海難救助 정책과 ‘4개의 창구’에 대한 고찰」, 『東北亞歷史論叢』28,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케네스 로빈슨(K. R. Robinson), 「15~16세기 일본의 僞使와 조선인의 송환」, 『東北亞歷史論叢』28, 동북아역사재단, 2010.

7) 李薰, 「제5장 人的 교류를 통해서 본 朝鮮·琉球관계 - 被虜人·漂流民을 중심으로 -」, 218~233쪽.

2. 사쓰마 선박에 동승한 유구인의 제주 표착

1) 표착 시기와 장소

1821(순조 21) 8월 제주에 외국 배 한 척이 표착하였다. 그 배의 표착지는 현재 지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西歸浦市) 남원읍(南元邑) 위미리(爲美里)이다. 그런데 일본 사쓰마(薩摩)의 상선(商船)에는 사쓰마 출신 ‘일본인’과 함께 ‘유구인’(琉球人)이 동승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조선쪽에서는 ‘유구인’의 동승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즉 이 때 표류민은 모두 사쓰마 출신의 ‘일본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래서 조선 정부는 전례대로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이들을 모두 ‘일본’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이것은 불과 두 달 전인 그해 6월 제주에 표착한 ‘유구국’ 사람 6명이 육로(陸路)를 통해 북경(北京)으로 송환되었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1821년 8월 ‘유구인’의 표류 사건을 일본 선박의 조선 표착으로만 간주해 왔다.⁸⁾ 그런데 이 표류 사건은 대마도가 작성한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대마도가 조선과 외교·무역의 실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두 나라의 표류민 송환 업무도 대마도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에 기초하여 당

8) ‘유구인’의 조선 표착을 다룬 기존의 연구(李薰, 같은 논문, 230쪽, <표 5> ;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科, 『漂流·漂着からみた環東シナ海の國際交流』, 1997, 91쪽)에서도, 1821년 8월에 일어난 ‘유구인’의 조선 표착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무려 20명이나 되는 ‘유구인’이 제주 정의현 위미포에 표착했는데도, 이 사건이 그저 일본 ‘사쓰마’ 사람의 표착으로만 인식되고 있어서 그 동안 역사적 진실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821년(순조 21, 文政 4) 12월 21일 조선의 일본어 통역인 왜학훈도(倭學訓導) 덕관(德官) 이첨지(李僉知)와 별차 자술(子述) 이주부(李主簿)가 작성한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살마주(薩摩州)의 배 한 척에 탄 표민(漂民) 42명이 금년 8월 28일 우리나라 전라도 제주에 표도(漂到)하였는데, 42명 중 2명이 죽었으며, 배가 파손되어 선재(船材)와 짐물(什物)을 그들의 요청에 따라 소각하였음.”⁹⁾

조선의 역관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살마주(薩摩州)의 배에 탄 표민(漂民)”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 가운데 ‘유구인’(琉球人)이 섞여 있다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들이 사쓰마의 상선에 ‘유구인’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 역관이 이 문서를 작성할 시점(1821.12.21)에서는 제주에 표착한 ‘사쓰마’ 사람이 4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명이 죽고 4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최초 사망자(유구인)가 발생한 것은 1821년 9월 17이었으며, 1주일 뒤인 9월 24일 두 번째 사망자(일본인)가 발생하였다. 세 번째 사망자(일본인) 발생일은 그해 10월 5일이었

9) 覺

一 薩摩州一船漂民四十二名今年八月二十八日漂到我國全羅道濟州而四十二名內二名物故船隻破傷故船材什物依渠願燒火之事

辛巳十二月二十一日 訓導德官李僉知

別差子述玄主簿

『文政四辛巳八月二十八日薩州船壹艘四拾貳人乘朝鮮國全羅道濟州江漂着破船記錄 當所において壹人病死』(朝鮮方),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5563 ; 이하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으로 줄임).

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선 역관이 문서를 작성한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도 위에서 본 역관의 문서에 사망자가 두 명으로 적혀 있는 것은 제주(濟州)와 한양(漢陽), 그리고 동래(東萊) 사이의 정보 전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1>과 <표 2> 참조).

2) 표류민 명단과 출신지

왜관의 관수는 조선 측으로부터 표류민들을 넘겨받은 뒤, 관례에 따라 그들을 다시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때 왜관 측은 그들을 ‘사쓰마’ 사람과 ‘유구’ 사람으로 서로 구분하였다.

<표 1>은 제주에 표착한 일본 사쓰마 사람의 명단이다. 이것은 표류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정(問情) 자료와 표류민이 지닌 목찰(木札)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래 사쓰마의 수부(水夫)가 22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히코자에몬(彦左衛門, 62세)은 1821년 9월 24일에(No. 21), 그리고 곤자에몬(權左衛門, 34세)은 같은 해 10월 5일에(No. 22) 각각 사망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제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이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암포(牛巖浦)에서 승선(乘船)한 상태에서 1822년 6월 25일 사쿠에몬(作右衛門, 53세)이 병사하였다(No. 7). 결국 일본으로 살아서 돌아간 사쓰마 사람은 19명이었다.

〈표 1〉 제주에 표착한 사쓰마 수부(水夫)

No	종교		출신지	나이		성명		비고	
	問情	木札		問情	木札	問情	木札		
1	淨土宗		薩州	30	佐太郎	休太郎	沖船頭 與左衛門의 子		
2	淨土宗			51	長吉				
3	淨土宗			44	十左衛門		儀兵衛의 子		
4	淨土宗			22	宗次郎		長吉叔父 小倉長次子		
5	淨土宗			38	十兵衛		본명 万五郎. 利吉弟 本명 理八		
6	淨土宗			44	與右衛門		본명 周太郎. 嘉右衛門의 弟		
7*	淨土宗	禪宗		53	作右衛門		孝次郎의 養子. 本명 吉右衛門 1822. 6.25 病死(우암포)		
8		禪宗		39	休左衛門				
9		禪宗		30	袈裟次郎		본명 小次郎. 佐吉의 弟		
10		禪宗		35	金十郎		助右衛門의 弟		
11		禪宗		6	金太郎		太郎右衛門의 養子. 嘉太郎의 子		
12		禪宗		14	助次郎		助右衛門의 弟. 本명 源七. 元次 右衛門의 子		
13		禪宗		17	周太郎		본명 孫市. 佐次右衛門의 養子 休市의 弟		
14*		禪宗		42	伊助		본명 平太, 1822.7.26 病死(對馬 府中)		
15		禪宗		12	千太郎		본명 岩松. 岩右衛門의 子		
16		禪宗		11	孝平治		본명 平太. 伊助의 子		
17		禪宗		29	重右衛門		正兵衛의 子. 本명 佐太郎		
18		禪宗		27 ¹⁰⁾	榮吉	×		七嶋灘에서 난과 때 분실	
19		禪宗		22 ¹¹⁾	太次郎	×		七嶋灘에서 난과 때 분실	
20		淨土宗		44	利吉		本名 万五郎		
21*	禪宗		62	彦左衛門		1821. 9.24 病死(제주)			
22*	禪宗		34	權左衛門		1821.10. 5 病死(제주)			

자료 :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주 : * 표시는 病死者, ‘問情’은 문정 자료, ‘木札’은 목찰 기재 내용을 뜻함.

10) 1821년 3월 23일 작성한 證文에는 榮吉의 나이가 26세로 적혀 있다(『文政

<표 2>는 제주에 표착한 사쓰마의 상선(商船)에 함께 타고 있던 ‘유구인’(琉球人)의 명단이다. 이에 따르면 사쓰마의 상선에 편승한 유구인은 원래 20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9살의 ‘미네’(嶺)라는 성을 가진 남자가 1821년 9월 17일에 병사(病死)하였다(No. 20). 아마도 그는 제주에서 사망한 것 같다.¹²⁾ 그 뒤 해를 넘겨 1822년 6월 27일 우암포(牛巖浦)에서 상선(上船)한 상태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喜惠德, 喜右衛門 ; 23세, No. 11). 결국 생존한 유구인은 18명이었다.

<표 2> 제주 표착 사쓰마 상선에 동승한 유구인

No	종교	출신지		나이	성명		비고
		(조선 문정)	(관수 문정)		(조선 문정)	(관수 문정)	
1	禪宗	薩州	琉球	64	恒右衛門	恒運	
2				29	恒八	恒順	
3				41	安右衛門	安怒	
4				31	近右衛門	實近	
5				27	恒吉	恒篤	
6				28	嶺右衛門	嶺喜久	
7				35	重八	長勝	
8				19	金太郎	金太郎	本名 金太郎
9				66	重右衛門	金久間	
10				36	佐平	喜惠怒	

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 1821년 3월 23일 작성한 證文에는 太次郎의 나이가 21세로 적혀 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 조선에서 사망한 사쓰마 사람 두 명 즉 히코자에몬(彦左衛門)과 곤자에몬(權左衛門), 그리고 유구 사람인 미네자에몬(嶺左衛門)은 표착(漂着)했을 때부터 병이 나서 조선 쪽에서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 그의 동료들도 그들을 극진히 보살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조선 쪽에서는 그들의 유해(遺骸)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도록 허용하였지만, 표류민들이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조선 쪽에서 관(棺)을 마련하여 장사를 치러주고 그곳에 묻었다고 한다.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No	종교	출신지		나이	성명		비고
		(조선 문정)	(관수 문정)		(조선 문정)	(관수 문정)	
11*				23	喜右衛門	喜惠德	1822. 6.27 病死(우암포)
12				23	富右衛門	富安喜	
13				28	常吉	常惠喜	
14				27	岩右衛門	巖里	
15				46	杜右衛門	杜子央	
16				31	宜次郎	宜望政	
17				21	嶺治	嶺治	本名 嶺治
18				19	嘉左衛門	仙太郎	
19				42	實五郎	實治	
20*				29	嶺左衛門	嶺喜志	1821. 9. 17 病死(제주)

자료 :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주 : * 표시는 병사자.

그렇다면 이들이 타고 왔던 배는 누구 소유였으며, 그들은 과연 어느 지역 출신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임오년(1822) 2월 5일(조선 3.5 - 인용자 주)¹³⁾에 작성된 사타로(佐太郎)의 진술서가 참고가 된다.¹⁴⁾ 이것

13) 이 문서의 작성일인 2월 5일이 일본력인지 조선력인지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마도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틀림 없이 일본력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날은 조선력으로는 3월 5일에 해당한다. 다대포 회항일이 일본력으로 2월 4일(조선 3.4)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서는 다대포 회항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乍恐口上覺

我々儀松平豊後守領内薩州仙臺太記郡水引船間島鐵太郎船住徳丸貳拾三反帆沖先頭佐太郎水夫共貳拾貳人乘豊後守用物大嶋二而積入去ル八月八日同所出帆領内山川と申所へ志し申候處九日俄二大北東風ニ相成段々難風波高二有之中七島ウと申所ニおいて楫をねらし不得已櫓をすへ其夜戌之方ニ向ヒつかし夫より洋中ニ漂着候處十四日大風ニ相成船具等損し居候上傳間等も流し難相凌用物船荷物共ニ打捨

을 보면 그들이 탄 배의 주인은 사쓰마번(薩摩藩)의 영내인 센다이이다키군(仙臺太記郡) 미즈히키(水引)의 후나마시마(船間島)¹⁵⁾에 사는 데쓰다로(鐵太郎)라는 사람이었다. 배의 이름은 주토쿠마루(住徳丸)¹⁶⁾였으며, 배 안에는 사쓰마번의 무역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 배를 끌었던 사람들은 사공 사타로(佐太郎)를 비롯한 22명의 사쓰마 수부(水夫)들이었다. 그들 일행은 8월 8일(조선 8.9) 오시마(大島)¹⁷⁾를 출발하여 사쓰마 영내의 야마카와(山川)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인 9일 갑자기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와 노가 부러지자

十死一生ノ體ニ御座候處十五日晝比より風波靜ニ相成寅卯之方ニ向ヒつかし居候處夕方高山相見候間夫を目當ニ仕日々流居申候處同廿七日夜ニ入何國共不存地方へ乘着ケ碇を入相かかり居候内同廿八日風波強く相成此所海邊皆瀬計に而難掛留候付綱伐り拂ヒ島を廻り候處少し入江有之其所へ漂居候内島人小船壹艘ニ乗組我々共且ツ手かかり之荷物少々積入相助被吳諸事預拵抱其後朝鮮と申儀を始て承知仕奉驚入候尤本船之儀は間もなく瀬ニ打寄セ船底打破水船ニ相成積荷物逆も少も取留得不申右船修補ニ相かかり候様無御座候間悉く燒捨ニ仕賞船釘は取集メ相送被吳候間取歸申候萬端懇ニ被扱被吳此所へ暫く逗留仕候居候處當正月二十日發船夫より段々被漕廻此所迄通船仕候處御役々様方御越被遊何角御懇之御事共誠以難有安心仕候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 15) 지금은 후나마시마(船間島)의 대부분이 사쓰마센다이시(薩摩川内市) 미나토정(港町)에 속해 있지만, 내륙 쪽으로는 미즈히키정(水引町)과 접해 있다. 정성일, 「조선과 일본의 인적 교류」(남원시전통문화육성보존회, 『남원도에문화와 일본』, 2010), 105쪽.
- 16) 이 배는 돛의 크기가 23反(端)인 帆船이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 17) 이들이 대마도로 돌아간 뒤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을 때 작성된 문서(1822년 7월)를 보면, 미즈히키(水引) 후나마시마(船間島)의 데쓰타로(鐵太郎) 소유 주토쿠마루(住徳丸)에 사쓰마번의 물건(무역품)을 싣고 사타로(佐太郎) 등 22명이 사쓰마를 출발한 것은 1821년 4월 2일, 그들이 오시마에 도착한 것은 4월 21일이라고 했다(去巳四月二日薩州出帆同廿一日大島と申所へ着船仕).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그들은 돛을 내리고 북서쪽(戌方)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4일에 바람이 크게 일어 선구가 파손되어 난파 위험에 놓이자 그들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포를 던져버린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15일 점심 무렵부터 바람이 잦아들고 북동쪽(寅卯之方)으로 흘러갔는데 석양에 높은 산이 보이자 그들은 그곳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표류를 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산이 제주 한라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제주 해역에 들어선 것은 27일(조선 28일) 저녁이었는데,¹⁸⁾ 28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배를 댈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배 한 척이 다가와서 그들을 구조해 주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곳이 ‘조선’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¹⁹⁾ 그곳

18)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측의 잡물이 1821년 8월 28일(일본 27일) 저녁 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표착이 조선 측에 의해 맨 처음 확인된 것은 8월 28일(일본 27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그해 8월 8일(조선 8.9) 오시마를 출발하여 8월 27일(조선 8.28) 제주에 닿았으니 19일 걸린 셈이다.

그런데 전라도 흑산도 흥어 장수로 알려진 문순득이 1802년 오시마에 표착한 적이 있으니, 그는 이들과 정반대의 경험을 한 셈이다. 문순득은 1802년 정월 18일 대흑산도와 소흑산도(가거도) 사이에 있는 변도(弁島)에서 표류하여 7일째인 25일 제주 서쪽에 이르렀다가 4일 뒤인 29일 ‘유구국’ 오시마에 표착하였다. 제주도에서 오시마까지 405마일(651킬로미터)이나 되는 거리를 불과 나흘 만에 닿은 셈인데, 아마도 이때는 순풍을 만나 돛을 펴고 빠른 속도로 항해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목포대학교 대학원 한국지방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91~97쪽).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오시마는 아마미제도(奄美諸島)에 속하는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를 가리킨다. 이곳은 오키나와현과 가까운 곳이지만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소속이다. 이것은 1609년 이후부터 메이지 초기까지 이곳이 사쓰마번(薩摩藩)의 지배를 받아왔던 데서 비롯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9) 일본 표류 기록을 보면 조선 표착일이 1821년 8월 28일(일본 27일)인지 29일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당시 일본과 유구의 표류민들이 조선과 일본의 역(曆)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제주를 출발한 것은 이듬해인 1822년 정월 20일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대포에 닿은 뒤인 2월 5일에 ‘편승자’²⁰⁾ 대표로 ‘항우위문’(恒右衛門)이 작성한 진술서가 왜관 측에 전달되었다.²¹⁾ 이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을 ‘사쓰마(薩摩) 가고시마(鹿兒島)의 야마카와(山川)’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쓰마번주가 그들을 오시마(大島)로 보내서 그곳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런데 8월 8일 그곳에서 사쓰마로 돌아오려던 차에 같은 영내의 미즈히키(水引) 후나마시마(船間鳴)에 사는 데쓰타로(鐵太郎) 소유의 배가 야마카와(山川)로 건너간다 하기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 타고 오다가 뜻밖의 큰 바람을 만나 표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처음 답변이었다.

나중에 위의 진술서 내용이 일부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쓰마 선박에 편승했던 사람들은 사실 사쓰마 야마카와 출신이 아니라 ‘유구인’이었다. 그의 이름도 ‘항우위문’(恒右衛門)이 아니라 항운(恒運)이었다(<표 2>의 No. 1). 이러한 사실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작성된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관수로부터 2월 7일²²⁾의 문서를 통해서, ‘일본

20) 원문에는 便乞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便乘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21) 乍恐口上覺

我々儀薩州鹿兒島山川と申所之者共ニ御座候處豊後守より大嶋へ被差越置候役々附キとして大嶋へ罷渡居去ル已八月歸州ニ差臨居候折柄同州仙臺太記ノ郡水引船間鳴鐵太郎船住徳丸貳拾三反帆沖船頭佐太郎山川へ渡海仕候付便船相頼乗七組貫候處不慮之難風ニ逢ヒ漂着仕難船之節切手等も流失爲仕奉恐入候此段宜御聞届被成下候様奉願候以上

壬午二月五日 薩摩州 鹿兒島領 山川

恒右衛門 印

便乞中

土井善治様

御役人衆中様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표류민(和漂民²³⁾) 편승인 20명이 곧 유구인(琉球人)이라고 하며, 그 가운데 한 명은 죽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19명이다’는 보고가 대마도에 전달되었다”²⁴⁾고 했다. 이것을 보면 ‘유구인’들은 조선에 표착하였을 때 조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관의 대마도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출신을 위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표류민의 소지품

사쓰마(薩摩) 출신 ‘일본인’(日本人)과 그들과 동승한 ‘유구인’(琉球人)이 타고 가던 배에 실린 물건은 다음과 같다. 특산물인 사탕 2,138정과 백사탕 180정이 먼저 눈에 띈다. 다만 이 물건들은 표류 중에 유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표착 당시에는 그들이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⁵⁾

- 사탕 2,138정(挺)²⁶⁾
- 백사탕 180정(挺)²⁷⁾
- 연석(筵席) 333매
- 파초(芭蕉) 759근

22) 이 문서는 왜관 측이 작성하여 대마도 본청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2월 7일은 일본력(日本曆)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다대포 회항(조선 3.4, 일본 2.4)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3) 대마도는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을 가리키는 뜻으로 ‘화표민(和漂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많았다.

24) “右同便館守より二月七日之内用狀を以和漂民便乞貳拾人則琉球人と相聞内壹人相果現拾九人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25)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26) 조선의 예조 서계(書契)에는 단위가 통(桶)으로 되어 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27) 조선의 예조 서계(書契)에는 단위가 통(桶)으로 되어 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 쇠가죽(牛皮) 4매
- 赤つく²⁸⁾ 589매

조선의 예조참의가 대마도주에게 보낸 서계(書契)에도 그들의 소지품이 위와 같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보면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들이 조선 쪽의 문정(問情) 때도 이와 같이 답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밖에 표류민들의 개인 물건이 조금 더 있었다. 가령 거울(鏡)이라든가 보자기(平布), 도시락, 작은 도끼, 곡척(曲尺)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마도 측의 조사를 받았을 때 향해 중 소지하게 되어 있던 통행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사쓰마 표류민들이 이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황송합니다만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구니모토(國元) 왕래(통행증인) 깃테(切手)는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그것을 넣어 둔 상자가 유실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찰(手札)은 밖에 놔두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 수찰 20매와 그 밖에 지찰(紙札) 2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사한 사람의 찰(札) 2매가 있지만, 병사했으므로 종이에 적어 제출합니다. 통행증은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물건인데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²⁹⁾

이 문서는 1822년 2월 5일(조선 3.5)³⁰⁾ 후나마시마(船間島) 데쓰타로(鐵太郎) 소유 선박의 사공이었던 사타로(佐太郎)가 도이 요시하루(土井善治)와 역인(役人)들에게 구두로 말한 것을 적은 각서이다. 이 문서에 이어서 수찰(手札)이라 불리는 목찰(木札)의 사본이 함께 실려 있다.

28) 조선의 예조 서계(書契)에는 赤津久로 적혀 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29)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30) 사쓰마 표류민이 왜관의 대마도 사람에게 말한 것을 적은 것이므로 이 문서 작성일은 일본의 역(曆)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겉면과 안면 양쪽에 적혀 있는데, 겉면은 모두 동일하므로 안면만 필사하여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표류민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나마시마(船間島)에 사는 26세 에이기치(榮吉)와 21세의 야스지로(太次郎)는 난파되는 상황에서 수찰(手札)을 잃어버렸다고 한다(<표 1> 참조).

4) 표류민 접대와 송환

(1) 송환 경로와 일정

이들이 제주에 표착하였다가 그 뒤 대마도까지 송환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1821년 8월 28일(일본 8.27) 제주(濟州) 정의현(旌義縣)에 표착한 이들은 1822년 1월 20일 제주에서 출선(出船)하여 윤 3월 5일(일본 3.5) 경상도 우암포로 회항한 다음, 동래부(東萊府) 초량왜관(草梁倭館)의 대마도 담당자들에게 인도되었다. 42명 중 3명이 제주에서 병사하였기 때문에 39명이 왜관 측에 넘겨진 셈이다. 제주 표착(조선 8.28)에서 우암포 회항(조선 윤 3.5)까지 7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주에서 한양까지 표류 사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뒤 조정으로부터 송환 지시를 받아서 우암포까지 배로 이송하였기 때문이다.³¹⁾

- 1821년 8월 28일(일본 8.27) 전라도 제주 정의현에 표착
- _____ 9월 17일 유구인(嶺右衛門, 嶺喜志) 병사(病死)
- _____ 9월 24일 사쓰마인(彦右衛門) 병사(病死)
- _____ 10월 5일 사쓰마인(權右衛門) 병사(病死)
- 1822년 1월 20일 조선인 배에 태워 제주 출선(出船)

31) 다대포 도착(조선 3.4, 일본 2.4)에서 우암포 송환(조선 윤 3.5, 일본 3.5)까지 가까운 거리인데도 무려 한 달가량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 이유는 이 때 비 오는 날이 많았고 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 _____ 3월 4일(일본 2.4) 경상도 다대포(多大浦)에 회항
- _____ 윤 3월 5일(일본 3.5) 경상도 우암포(牛巖浦)에 회항
- _____ 4월 2일 왜관 관수(館守)가 문정(問情)
- _____ 6월 21일 경상도 우암포(牛巖浦)에서 짐 검사, 승선(乘船)
- _____ 6월 25일 사쓰마인(作右衛門) 병사(病死)
- _____ 6월 27일 유구인(喜右衛門, 喜惠德) 병사(病死)
- _____ 6월 27일 조선 출범(出帆)
- _____ 6월 29일 바다를 건너 대마도 사스나(佐須奈) 관소(關所 석쇼)에 착선
- _____ 7월 1일 대마도 사스나(佐須奈) 관소(關所) 출발
- _____ 7월 8일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
- _____ 7월 25일 대마도 이정암(以酌庵) 점검
- _____ 7월 26일 사쓰마인(伊助) 병사(病死)
- _____ 8월 7일 대마도 부중(府中)에서 승선

그런데 조선 정부는 제주에 표류해 온 일본인을 동래의 왜관으로 송환할 때, 통영(統營)을 경유하지 못하게 했으며, 각 진보(鎭堡)에 머무르지 말도록 했다. 즉 제주에서 전라 수사(全羅水使)에게 표류민들을 보내면 수사가 그들을 동래(東萊)로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조선 측은 표류민 송환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 기밀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경계하여 외국 사람에게 조선의 변방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 따라서 이들을 경상도로 이송할 때도 통영을 거치지 않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들은 왜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윤 3월 5일(일본 3.5)부터 우암포(牛巖浦)에서 머물렀다. 왜관의 일본인들은 대마도 출신 표류민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같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왜관의

32) 그런데 1682년에는 “왜인(倭人)을 거느린 자가 한산(閑山)의 외양(外洋)을 경유하면서 통영(統營)을 지나간” 일이 있어서, “그때의 수사(水使)를 중죄(重罪)에 따라 징계하고, 왜인을 거느렸던 군관(軍官)은 통영(統營)에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라고 조정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 있다. 『숙종실록』 8년(1682) 6월 13일(기축).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려했던 것 같다. 우암포 도착 후 약 한 달 뒤인 4월 2일에 관수(館守)의 문정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6월 21일 우암포에서 승선하여 대마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출항 전에 두 명이 병사하고 말았다. 결국 사쓰마 사람 19명과 유구인 18명을 합해서 총 37명이 현해탄을 건넜다.

그들은 6월 27일 조선에서 닻을 띄워 이틀 뒤인 29일 대마도 북쪽 끝 사스나(佐須奈)의 세관 즉 세키쇼(關所)에 닿았다. 다시 남진(南進)을 계속하여 7월 8일 그들은 대마도의 번청(藩廳) 소재지인 후츄(府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사쓰마와 유구의 표류민들은 8월 7일 대마도를 출발하여 나가사키로 향하였다. 그보다 10여 일 전인 7월 26일 사쓰마 출신 한 명(伊助, 42세)이 병사(病死)하는 바람에, 이때 생환자는 모두 36명이었다. 나가사키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그들은 일단 사쓰마로 송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접대와 잡물 지급

조선에 표류해 온 외국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식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먹을거리와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표류민들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측은 이들에게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 분량의 식량을 지급하였다. 당시 일반적으로 하루 두 끼 밥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도 두 끼 분량의 식료가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각종 반찬거리와 양념 등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다. 여기에 취사와 난방용 땔감이 주어졌음은 물론이다. 물과 야채는 매일 주는 것이 관례였다.

가. 오일량(五日糧)

대체로 잡물 지급은 5일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오일량(五日糧)이라고도 하고 오일차(五日次)라고도 불렀다.

<표 3> 제주에서 다대포까지 배로 이동 중에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에게 지급한 잡물

No	품명		수량	비고
	(조선 이름)	(일본 이름)		
1	쌀(料米)	料米(료마이)	118석 1두 9합	
2	대구어(大口魚)	鱈(다라)	840미	
3	명태(明太)	明太(멘타이)	5,042미	
4	백합염(白蛤鹽)	塩蛤(시오하마구래)	56두 3승 1합	백합 젓갈
5	소금(鹽)	塩(시오)	56두 3승 1합	
6	참기름(眞油)	胡麻油(고마아부라)	106두 3승 7합 8석	
7	간장(甘醬)	醬油(쇼유)	84두 4합 5석	
8	미역(藁)	和布(와카메)	292근 79전 9분	일본은 79몸메(匁)

자료 : 임오(1822년) 6월 21일자 훈도와 별차의 각서 『文政四年 薩州船濟州漂着記録』

주 : 1821년 8월 28일 저녁부터 1822년 윤 3월 5일 저녁까지 215 일 만나질 분 饌物

<표 3>은 일본과 유구의 표류민들이 제주에 닿았을 때부터 그곳을 떠나 다대포에 도착한 뒤 다시 우암포로 떠나기 전까지, 조선 측이 지급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소개한 것이다. 1821년 8월 28일(일본 8.27) 저녁(제주 표착)부터 1822년 윤 3월³³⁾ 5일(일본 3.5) 저녁(우암포 도착)까지 215.5일분을 제공한 식재료는 쌀(118석 1두 9합)을 비롯하여 소금, 간장, 참기름, 건어물, 젓갈, 미역 등이었다.

<표 4> 우암포에서 체류 시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에게 지급한 잡물

No	품명		수량	비고
	(조선 이름)	(일본 이름)		
1	쌀(料米)	料米(료마이)	53석 8두 4승	
2	대구어(大口魚)	鱈(다라)	401미 반	
3	명태(明太)	明太(멘타이)	2,410미	

33) 1822년의 경우 조선에는 3월에 윤달이 들었는데, 일본에는 1월이 윤달이었다. 조선 역관이 작성한 이 문서는 조선력(朝鮮曆)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No	품명		수량	비고
	(조선 이름)	(일본 이름)		
4	백합염(白蛤鹽)	塩蛤(시오하마구리)	26두 9승 1합 9석 9재	백합 젓갈
5	소금(鹽)	塩(시오)	26두 9승 1합 9석 9재	
6	참기름(眞油)	胡麻油(고마아부라)	8두 3합 4석	
7	간장(甘醬)	醬油(쇼유)	40두 1승 7합	
8	미역(藁)	和布(와카메)	139근 94전 6분	일본은 94몸메 匂

자료 : 임오(1822년) 6월 21일자 훈도와 별차의 각서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주 : 1822년 윤 3월 6일 아침부터 6월 21일 저녁까지 103일분 饌物.

<표 4>는 이들이 우암포에 도착한 다음 날(조선 윤 3.6, 일본 3.6) 아침부터 왜관 측의 조사가 끝난 뒤 대마도로 건너가기 위해 우암포에서 배를 탈 때까지(1822년 6월 21일 저녁) 103일 동안 조선 측에서 지급한 물품을 적은 것이다. 쌀(53석 8두 4승)을 비롯하여 지급 품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날 수에 따라 수량에 변화가 있었다.

<표 5>는 1822년 6월 17일 아침부터 6월 21일 저녁까지 5일 동안 제공된 수량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 39명에게 지급된 5일분 식재료의 품명과 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8개 품목의 수량을 각각 39명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5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하루 지급 기준량을 산출할 수 있다.

<표 5> 우암포에서 체류 시 오일량(1822.6.17 아침~6.21 저녁)

No	품명		수량	비고
	(조선 이름)	(일본 이름)		
1	쌀(料米)	料米(료마이)	2석 9두	39명×5일×2승=39두 (1석=15두)
2	대구어(大口魚)	鱈(다라)	19미 반	39명×5일× <u>0.1미</u>
3	명태(明太)	明太(멘타이)	117미	39명×5일× <u>0.6미</u>
4	백합염(白蛤鹽)	塩蛤 (시오하마구리)	1두 3승 0합 6석 5재	39명×5일× <u>0.67합</u>

No	품명		수량	비고
	(조선 이름)	(일본 이름)		
5	소금(鹽)	塩(시오)	1두 3승 0합 6석 5재	39명×5일× <u>0.67합</u>
6	참기름(眞油)	胡麻油 (고마아부라)	3승 9합	39명×5일× <u>0.2합</u>
7	간장(甘醬)	醬油(쇼유)	1두 9승 5합	39명×5일× <u>1합</u>
8	미역(藿)	和布(와카메)	6근 79전 3분 5되	39명×5일× <u>0.4963냥</u> (1근=16냥)

자료 :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가령 이 기간 동안에 쌀(白米)이 2석 9두 지급되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백미의 경우 1석=15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39두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것을 39로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5로 나누면, 0.2라는 수치를 얻게 된다. 이것을 보면 표류민 한 사람당 하루에 쌀이 0.2말(斗) 즉 2되(升)씩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즉 아침과 저

34) 조선 정부가 대마도의 歲遣第一船과 第一特送船의 정관(正官)에게 하루에 지급한 쌀 즉 요미(料米)가 각각 4되였다(김건서 지음, 하우봉·홍성덕 옮김,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17쪽, 29쪽 ; 『증정교린지』 제1권 年例送使). 또한 표류한 왜선(倭船)이 동래(東萊) 경계 밖 좌우 연해에 정박하면, A급(각종 송사(送使)와 대소(大小) 차왜(差倭), 관수(館守), 재판(裁判), 대관(代官), 금도(禁徒), 선문두왜(先問頭倭), 서기(書記), 의사(醫師), 통사(通事), 승왜(僧倭))은 5되를, B급(종인(從人), 하금도(下禁徒), 하대왜(下代倭))과 C급(격왜(格倭))은 각각 3되씩을 한 사람당 하루 요미(料米)로서 지급하였다(김건서 지, 하우봉·홍성덕 역, 『국역 증정교린지』, 154~155쪽 ; 『증정교린지』 제4권 漂支支給). 이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입국한 일본 연례송사의 최고급 외교관이 하루에 받은 요미(4되)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2되)을 조선 표착 일본 표류민이 받았으며, 불시착한 일본 사신이 받은 요미(5되, 3되)보다는 일본 표류민이 받는 요미(2되)가 양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 진휼곡(賑恤穀)에 명시된 하루 1인당 최소 쌀 소비량이 남자 장년 5홉, 여자 장년 4홉, 남녀 노인 4홉, 남녀 아동 3홉이라고 한다(이정수·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163쪽). 이것과 비교하면 조선 정부가 일본 표류민에게 지급한 하루

넉 두 끼 식사 분량으로 쌀을 하루에 1인당 2되씩 지급하였으므로, 조선측이 ‘일본’ 표류민들에게 한 끼에 밥을 지을 쌀로 한 사람당 한 되씩 준 셈이다.³⁵⁾

이는 1782년에 홍양에 표착한 사쓰마 표류민들에게 제공된 쌀의 수량과 일치한다.³⁶⁾ 1841년 4월 25일 강원도 평해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에게도 1일 1인 기준으로 쌀 2되씩 지급한 것으로 보아,³⁷⁾ ‘조선 단위 2되=일본 단위 7홉’³⁸⁾이라고 하는 기준이 조선에서는 그 뒤로도 유

1인당 쌀 지급량 2되는 장년 기준 최소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35) 조선후기 성인 남자는 보통 한 끼에 쌀을 7홉, 성인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쌀 1홉의 양은 대략 600cc였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임진왜란 때 비록 전시중이라고는 하나 “하루에 쌀 한 되로 세 끼 식사를 했다”고 한다(정연식, 2008,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87~89쪽). 이것을 보면 조선 표착 일본인에게 한 끼 식량으로 지급된 쌀 1되 즉 600cc는 꽤 많은 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6) 전라남도 홍양현(지금의 고흥군) 삼도(三島) 덕흥(德興, 지금의 거문도)에 표착한 사쓰마(薩摩) 표류민 3명에게 1782년 4월 7일 저녁부터 경상도 우암포에서 상선(上船)한 10월 7일 저녁까지 176.5일 동안 지급된 수량(쌀 7석 9승 = 105두 9승)을 1일 1인당 지급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薩州秋目之者三人乘一艘全羅道興陽縣三島德興江漂流記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2839).

37) 『公義被仰上』 29(天保十三壬寅年より同十四癸卯まで) 「從朝鮮國加州漂人江之贈物目錄寫」, 일본 慶應義塾大學 도서관 소장 宗家文書(94-10-39).

38) 조선의 쌀 1말(斗)은 일본의 3되(升) 5홉(合)에 해당한다고 한다(朝鮮之壹斗ハ日本之三升五合ニ御座候, 『薩州秋目之者三人乘一艘全羅道興陽縣三島德興江漂流記錄』, 국사편찬위원회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2839). 대마도의 조선어 통역을 지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도 자신이 쓴 『象胥紀聞』에서 “조선의 한 말(일본의) 京杵(京杵)로 3되 5홉”이라고 했다. 경승 한 되 용량이 약 1.774cc이므로 일본 경승 3.5되, 즉 조선 한 말은 약 6,210cc가 되는 셈이다(小田幾五郎 지음, 栗田英二 역주, 『象胥紀聞一對馬島通事가 본 18世紀 韓半島文化一』, 이회, 2005, 144쪽). 아무튼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 한 사람에게 하루에 지급된 쌀 2되를 일본 단위로 환산하면 7홉, 즉 1,200~1,242cc가 된다.

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참고로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이 그곳에서 받았다고 한 쌀의 양은 ‘6홉’으로 기록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때의 단위는 일본 단위로 추정된다.⁴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 표착 일본 표류민에게 지급된 쌀의 양(일본 단위 7홉)이 일본 표착 조선 표류민에게 지급된 것(일본 단위 6홉)보다 약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과 일본의 도량형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⁴¹⁾

이런 식으로 1인당 하루 지급량을 산출하여 1822년과 1782년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더니, 쌀(2되)과 대구어(0.1마리), 간장(1홉)은 수량이 거의 동일하였다. 명태(1822년 0.6마리, 1782년 0.7마리)와 백합 것갈(1822년 0.67홉, 1782년 0.69홉), 참기름(1822년 0.2홉, 1782년 0.37홉), 미역

39) 표류민에게 지급된 쌀만 놓고 본다면, 조선 표착 일본인(7.52홉)이 일본 표착 조선인(7.5홉)보다 0.02홉 더 받은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이훈, 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125쪽). 그런데 이 기준이 실제 표착지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 『제주계록』에는 일본으로 표류한 제주인이 일본에서 받은 쌀의 수량을 적은 것이 모두 10건이 있다. 이 가운데 9건은 하루에 한 사람당 쌀을 ‘6홉’씩 받았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1건은 ‘1되 8홉’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물론 그때의 수량이 조선 단위인지 일본 단위인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서귀포시, 『제주계록』, 1995, 비매품, 135쪽). 그렇지만 정황으로 볼 때 ‘6홉’은 일본 단위로, ‘1되 8홉’은 조선 단위로 적은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참고로 조선의 쌀 ‘1되 8홉’은 일본 단위로 ‘6.3홉’에 해당한다.

41) 1849년 유구에 표착한 제주 별도리(別刀里) 출신 임상일(任尙日, 45세)은 하루에 쌀 ‘2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제주계록』, 135쪽). 다만 이때의 수량이 조선 단위인지, 아니면 일본 또는 유구의 단위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조선 단위였다면 당시 조선 표착 일본인에게 지급된 쌀의 양(조선 단위 2되)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일본 단위였다면, 그들이 유구에서 받은 쌀이 조선 표착 일본인의 그것(일본 단위 7홉)보다 3배 가까이 많게 되는 셈이다. 유구가 특별히 조선인 표류민을 후대(厚待)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유구도 역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행’ 즉 ‘조선 단위 2되=일본 단위 7홉’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1822년 0.533냥, 1782년 0.496냥) 등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소금(1822년 0.67홉, 1782년 1.68홉)은 1홉 정도 차이를 보였다.

나. 역관의 예물

오일량 외에도 상선(上船)에 즈음하여 조선의 역관들이 표류민의 무사 귀국을 바라는 뜻으로 예물을 전달하였다. 1822년 6월 20일에 훈도와 별차가 보낸 선물을 보면, 떡 1그릇(器), 능금(陵苓) 100개, 명태 20마리, 술 1병이었다. 6월 21일에 상선(上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훈도 이침지와 별차 현주부가 예물을 보낸 날은 상선 하루 전 날이었다.⁴²⁾ 떡과 후식(과일), 그리고 술과 안주를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1782년 홍양 표착 사쓰마 표류민에게 양역(兩譯) 즉 훈도와 별차가 보낸 예물을 보면, 떡(白餅) 1그릇(器), 꽃감 1첩(貼), 대구어 3마리, 술(淸酒) 1병이었다. 이것을 1822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떡 1그릇과 술 1병은 품목과 수량 모두 일치한다. 그런데 과일은 1782년에는 꽃감 1첩이었는데, 1822년에는 능금 곧 사과 100개였다. 그리고 1782년에는 건어물로 대구어 3마리를 보냈는데, 1822년에는 그것이 명태 20마리로 되어 있다.

다. 도해량(渡海糧)

〈표 6〉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이 바다를 건너갈 때 쓸 쌀과 옷감 지급

No	품명	수량	비고
1	양미(糧米)	26석	39명×10두+15두=26석
2	옷감(衣資木)	39필	39명×1필=39필

자료 :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주 : 작성일은 임오 6월 일. 1822년 6월 21일에 지급.

42) 『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조선 측은 이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쓸 식량과 옷감 명목으로 쌀 26석과 옷감 39필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것은 사쓰마와 유구 표류민 39명에게 지급한 총량이다. 조선 정부가 일본인 표류민에게 1인당 쌀 10말(斗)⁴³⁾과 목면 1필씩⁴⁴⁾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었다(<표 6> 참조).⁴⁵⁾

- 43) 한 사람당 지급된 과해량(過海糧) 10말(斗)을 하루 요미(料米)인 2되(升)로 나누면, 이것은 50일 분 식량이 되는 셈이다. 조선 정부가 언제부터 과해량을 10말씩 지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임진왜란 전에는 1인당 과해량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렵지만, 1471년(성종 2년)에 3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던 것이 그대로 『海東諸國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성종실록』 2년(1471) 8월 26일(병인)조에 따르면, 대마도는 5일 분, 잇키(壹岐)는 15일 분, 구주(九州)는 20일 분으로 정하고, 국왕사(國王使), 교토(京都) 인근 대신(大臣)의 사인(使人), 유구국(琉球國) 사인 등에 대해서는 구주의 일수와 같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유구국 사인의 과해량을 20일 분만 지급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한때 조정(朝廷)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다만 유구국 사인의 과해량을 더 늘렸다는 결정은 발견되지 않았다(『연산군일기』 7년(1501) 1월 10일(기미), 1월 27일(병자)). 참고로 조선 초기에는 사쓰마(薩摩)에서 온 사신에게 90일 분의 과해량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다하다 하여 1438년에는 그것을 30일 분으로 줄인 적이 있었다(『세종실록』 20년(1438) 9월 29일(경술)). 즉 사쓰마 사신이 받아간 과해량은 90일 분 → 30일 분 → 20일 분으로 점차 줄어든 셈이다.
- 44) 언제부터 조선 표착 일본인에게 한 사람당 1필씩 목면(木綿)이 지급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8세기 중엽 이후 일관되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15세기 중엽에 제주 경차관(敬差官)이 포획한 일본인 48명을 후하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과해량(過海糧)을 3말(斗)씩 주었더니 고맙다고 절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그 일본인들이 “홀옷(單衣) 한 벌 입고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면서, 의복(衣服)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제주 경차관이 “한 사람당 배(布子) 1필씩 주었다”고 조정에 보고한 적이 있었다(『세조실록』 9년(1463) 11월 28일(임오)). 이때의 면포 지급이 선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 45) 조선 정부가 대마도의 歲遣第一船과 第一特送船에 지급한 과해량(過海糧) 즉 도해량(渡海糧)이 각각 3석 12두(=57두), 5석 8두(=83두)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의 승선 인원이 각각 40명, 30명, 20명이었다고 한다(釜山甲寅會, 1915, 『日鮮通交史』, 458-459쪽). 여

그들이 귀국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쌀을 가리켜 보통 과해량(過海糧)이나 도해량(渡海糧)으로 불렀는데, 이것을 줄여서 양미(糧米)라고도 했다. 이와 달리 그들이 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지급한 쌀은 요미(料米)라 하여 서로 구분하였다. 바다를 건널 때는 언제든지 표류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쌀과 옷감을 여유분까지 고려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서계의 교환

표류민 송환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업무는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주고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때도 조선의 예조참의가 작성한 서계가 대마도주에게 전달되었으며, 그것이 막부 쪽에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822년 4월에 예조참의 윤풍렬(尹豐烈)의 명의로 작성된 서계 원본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⁴⁶⁾ 이 서계⁴⁷⁾는 본래 조선이 대마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대마도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총독부(總督府) 산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1926(大正 15년)과 1938년(昭和 13) 두 차례에 걸쳐 옛 대마번주(對馬藩主) 측으

기에 비하면 조선 표착 일본 표류민 한 사람당 10두씩 양미(糧米)가 지급된 것은 후대(厚待)라고 말할 수 있다.

4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 No. 7324.

47) 1822년 5월 17일 왜관의 東向寺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조정에서 동래부로 전달된 서계의 사본을 조선 역관을 통해서 입수하여 왜관의 동향사 승려들이 그것을 미리 검토해 보았는데, 두세 군데 미심쩍은 곳이 있었지만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선 조정의 서계가 동래부로 오기까지 너무 시일이 지체된 데다가, 조선에 체류 중이던 ‘일본’ 표류민들이 조기 귀국을 희망하던 터라 더 이상 시간을 끌기가 어렵다고 왜관 측이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동향사에서는 서계에 적힌 異體字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錄』).

로부터 고서와 고문서를 ‘구입’(購入)해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1945년 일본의 패전(敗戰) 이후 그대로 한국에 남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서계에는 전라도 제주목 정의현 위미포에 표도(漂到)한 ‘살마주’(薩摩州)의 선박이 표류를 하게 된 경위와 제주 정의현 지방관이 그 선박을 구조하여 표류민들을 구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42명 중 3명이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자는 일본인의 요청에 따라 관렴(棺殮)을 하여 정의현에 매장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서계가 작성된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생존자는 39명이었으므로 이 서계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 다만 이 서계의 어디에도 ‘유구인’(琉球人)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1822년 6월 21일 배에 올라 탄 상선(上船) 상태에서 출항을 기다리는 도중에 그만 두 명이 추가로 병사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현해탄을 살아서 건넌 사람은 37명뿐이었다. 이 두 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의사가 호출되어 손을 썼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아무튼 조선에서는 예조참의와 동래부사, 부산첨사가 각각 서계를 작성하여 왜관 측에 전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대마도 측은 조선의 서계를 지참한 상태에서 표류민들을 일본으로 호송하였다. 그런 다음 대마도는 이를 막부에 보고하였으며, 대마도주는 예조참의와 동래부사·부산첨사 앞으로 회답 서계를 작성하여 표류민 송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외교 관례였다. 이렇게 해서 표류민 송환과 관련한 외교 조치가 완료된다. 그런데 대마도가 조선에 보낸 서계의 원본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현재 학계에 보고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서계를 필사해 둔 사본이 남아 있어서 그때의 일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48) 『兩國往復書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3. 제주 표착 유구인의 일본인 위장 사례

1) 1820년대의 사례

1821년 8월 28일(일본 8.27) 제주에 표착한 사람들은 사쓰마 출신 ‘일본인’과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구인’ 20명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이 조선에서 문정(問情)을 받았을 때는 ‘사쓰마’ 출신이라고 대답하여 조선 측을 속였다. 심지어 왜관의 대마도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사쓰마 야마카와(山川) 출신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명조차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 답변하였다.

앞의 <표 2>의 No. 1에서 보는 것처럼 64세의 향운(恒運)은 조선에서 자신의 이름을 향우위문(恒右衛門 쓰네에몬)으로, 그리고 41세의 안노(安怒)는 안우위문(安右衛門 야스에몬)으로 거짓 진술하였다(No. 3 참조). 제주에서 병사(病死)한 ‘미네’라는 유구인은 조선 측의 문정(問情)을 받을 때는 ‘영좌위문’(嶺左衛門 미네자에몬)이라고 하였는데, 그 뒤 왜관의 문정에서는 그의 본명이 ‘영희지’(嶺喜志 미네기시)로 뒤늦게 밝혀졌다(No. 20 참조).

유구인들이 일본식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이러했다. 이름 끝에 좌위문(左衛門 자에몬), 우위문(右衛門 우에몬), 태랑(太郎 다로), 차랑(次郎 지로), 오랑(五郎 고로) 같은 것을 붙이는 수법이 많이 동원되었다. 이름 끝에 팔(八 하치)이나 길(吉 기치), 평(平 헤이) 같은 글자를 넣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의 첫 글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⁴⁹⁾ 다만 실근(實近) → 근우위문(近右衛門, No. 4),

49) 1741년 야에야마(八重山)에서 사쓰마로 가던 중 중국에 표착한 사쓰마 선

장승(長勝) → 중팔(重八, No. 7), 금구간(金久間) → 중우위문(重右衛門), No. 9), 희혜노(喜惠怒) → 좌평(佐平, No. 10)의 예처럼 독특한 방식으로 가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유구’ 출신 표류민 20명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속이지 않은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다. 즉 금태랑(金太郎 긴타로, 19세)과 영치(嶺治 미네하루, 21세)는 조선 쪽 문정 때도 본명 그대로 답변하였다(<표 6>의 No. 8, No. 17 참조). 아마도 긴타로는 자신의 이름이 조선 측에 일본식 이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관 관수가 대마도 본청으로 보낸 서장(書狀)을 통해서도 ‘유구인’의 일본인 행세를 확인할 수 있다. 1822년 2월 7일자(조선 3.7) 문서에 이러한 기술이 보인다.

“일본 표류민의 배에 편승한 20명은 곧 유구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여 지금은 19명인데, 다음과 같이 성명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일찍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게 될 때에는 일본인 복장을 하고 일본 이름을 쓰라고 구니모토에서 지시가 내려졌기에, 조선의 관리들에게는 일본인이라고 말해 두도록 문정하는 역인들에게 말하였으며, 그 가운데 세 명은 총발(惣髮)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복(元服)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발을 하고 있는 세 명은 때에 맞추어 원복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왕복 문서 사본에 적혀 있습니다.”⁵⁰⁾

밖에는 나하(那覇)에서 고용된 유구인 두 사람이 벳사람으로서 동승하고 있었다. 귀국 후 일본 측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칼로 머리카락을 밀어 일본인 모습을 하였으며, 金城은 金右衛門으로 그리고 吳屋은 五右衛門으로 이름을 바꾸어 대답하였다고 한다. 金城과 吳屋이 유구인의 본명이며, 金右衛門과 五右衛門은 모두 가짜 일본식 이름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渡邊美季, 「清に對する琉日關係の隱蔽と漂着問題」, 『史學雜誌』 114-11, 東京大學文學部史學會, 2005, 12~13쪽 참조.

50) “和漂民便乞貳拾人、則琉球人と相聞、內壹人相果現人拾九人、左之名前書差出、兼而他國へ漂流之節は元服爲致日本人と名乗候様於國許達有之候付、朝鮮之役人衆へは日本人と申出置候旨問情之役々へ

이처럼 조선으로 표류해 온 ‘유구인’은 자신을 ‘일본인’으로 위장하였다. 조선쪽에서 ‘유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인 복장을 하는가 하면, 일본풍 머리모양을 하기도 하였다.⁵¹⁾ 그들이 ‘유구인’이면서도 ‘일본 사쓰마’ 사람이라고 조선 측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유구인’ 20명 모두 나이와 종교는 속이지 않았다.

2) 1850~60년대의 사례

앞에서 살펴 본 1821년의 사례보다 37년 뒤인 1858년에 제주 모슬포 해변에 세 척의 배가 표류해 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는 사쓰마의 상선(商船)이었는데, 그 중 한 척의 배에 ‘유구인’ 풍조보(豊助保) 등 18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제주 현지에서 문정(問情)을 하던 조선의 관리들이 ‘유구인’의 동승을 적발하게 된다.⁵²⁾ “유구인이 어

申出、其内三人は惣髮仕居殘之者共は元服仕居候、尤惣髮之三人は時宜に依元服爲致候儀も可有之旨申來、委細往復控に有之”『文政四年薩州船濟州漂着記録』.

- 51) 1773년 중국에 표착한 유구인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에라부지마(永良部島)에서 사쓰마를 향해 항해하다가 도중에 중국에 표착한 사쓰마 선박에는 유구인 두 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들의 본명은 登世村과 島森이었는데, 각각 자신의 이름을 村右衛門과 島右衛門으로 바꾸어 대답했다. 또 그들이 일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모두 사카야키(月代) 식으로 머리를 깎아서 일본인으로 위장하였다고 한다. 渡邊美季, 앞의 논문, 12쪽.
- 52) 중국에 표착한 사쓰마 선박에 동승했던 유구인이 중국 측 조사에서 ‘유구인’임이 드러난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몇 건 소개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1810년 중국 江蘇省에 표착한 ‘鹿兒島人’ 중에 ‘유구인’ 한 명이 동승하고 있었음이 淸의 기록에 남아 있다(渡邊美季, 같은 논문, 13쪽). 大城之親雲上으로 알려진 그는 1810년 8월 30일 江蘇省에 ‘漂至’하였는데, 중국 측 조사에 대하여 그 자신이 ‘유구인’임을 밝혔기에 그는 福州를 경유하여 유구로 송환되었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 편, 『清代中琉關係檔案選編』,

떻게 해서 일본 배에 동승했는가?” 하는 조선 측의 질문에 대하여, “유구와 일본은 서로 교역하므로,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고 같이 타고 다니면서 행상(行商)한다.”고 답변하면서, ‘유구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인정하고 만다. 더구나 모슬포에서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구인’들의 간청을 제주목사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들은 ‘육로’를 통한 중국 경유나 ‘해로’를 통한 일본 경유가 아닌 ‘직항’의 형태로 귀국하였다. 그들은 귀국에 다시 표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제주목사는 그들의 귀국을 막지 않았던 것 같다.⁵³⁾

1861년에도 제주 대정현(大靜縣) 파잔포(波漣浦)에 유구인 3명과 사쓰마 표류민 등 31명이 표착한 일이 있었다. 이때도 유구인들은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위장하려 했던 모양인데,⁵⁴⁾ 표착지에서 이루어진 문정 때 제주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유구인임이 밝혀졌고, 더구나 조선 조정에 보고가 끝나버리는 바람에,⁵⁵⁾ 유구인의 일본인 위장은 실패로 끝났던 것 같다.⁵⁶⁾ 다만 조선의 별차(別差)가 “유구인이 무슨 까닭으로 사쓰마 배에 뒀느냐?”⁵⁷⁾는 물음에 대하여, 왜관의 대마도 사람들은 “유구가 사쓰마의 속국이기 때문”⁵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쪽에서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⁵⁹⁾

中華書局, 1993, 421-422쪽, 430-431쪽 참조(원 사료는 劉序楓 박사 제공).
53) 『제주계록』, 298~310쪽.

54) “先例琉球人乘組候節は多分名を替日本人に仕立問情取計無御手入相濟來候處”(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2877, 2878 ; 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양수지, 『朝鮮·琉球關係史料集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 4, 1998, 453쪽 참조)

55) “当節漂着先之問情琉球人にて都表啓聞も相濟候事故”(손승철 외, 같은 책, 453쪽)

56) “轉作之仕道不相届”(손승철 외, 같은 책, 453~454쪽)

57) “何故に薩摩船へ乘組居候哉”(손승철 외, 같은 책, 454쪽)

58) “琉球之儀は薩摩屬國之趣”(손승철 외, 같은 책, 454쪽)

59) “於彼國も其通と承及候段申聞夫故無異儀此方へ相渡候事と相聞”(손승

이상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850년대 말이 되면 적어도 제주 지역에서는 유구인의 일본인 위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제주인이 사쓰마 출신의 일본인과 유구인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뜻한다. 아편전쟁(1840-42년) 이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제주 해역에도 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⁶⁰⁾ 둘째, 유구인이 사쓰마 배에 동승한 이유가 유구와 일본의 무역 관계나 종속 관계로 조선 측에 설명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측은 이미 유구와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셋째, 1861년 시점까지도 일본 측은 전례대로 유구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답변하려고 하였다. 즉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구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를 여전히 조선쪽에 은폐하려고 하였음이 위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4. 유구인의 출신지 위장이 갖는 의미

1821년 8월 일본 사쓰마 사람들과 함께 제주에 표착한 ‘유구인’(琉球人) 20명은 자신들을 ‘일본인’(日本人)으로 위장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대마도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송환되었다. 이와 달리 이들보다 불과 두 달 전인 6월 제주에 표착한 유구인 6명은 ‘유구인’임이 밝혀져, 중국을 경유하는 ‘육로’(陸路) 송환을 ‘희망’하

철 외, 같은 책, 454쪽)

60) 1853년 중국에 표착한 사쓰마 선박이 ‘琉球로 渡海’한 사실을 전처럼 숨기지 않고 중국 측에 당당히 밝힌 사례가 있다고 한다(渡邊美季, 앞의 논문, 13쪽). 아마 이러한 변화도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였다. 이 둘은 같은 해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유구인’의 표류 사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유구인’의 대응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유구가 중국과 맺은 조공관계(朝貢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구가 일본 사쓰마번(薩摩藩)과 맺은 복속관계를 중국이나 조선 측에 은폐하고자 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유구 정부는 유구 지역으로 표류해 간 조선인 표류민을 현지 주민과 격리시키고, 조선인들에게 일본 문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본 노래나 일본인 성명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⁶¹⁾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1821년 8월 제주 정의현 위미포 표착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쓰마의 상선(商船)에 편승해 있던 ‘유구인’ 20명은 조선에 표착한 순간부터 조선 정부가 그들을 왜관(倭館) 측에 인도할 때까지, 그들이 ‘일본인’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인 이름을 쓰고 일본 복장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일본풍 머리모양을 일부러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조선에 표착한 유구인이 일본인 행세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다. 그런 반면에 유구로 표류한 조선인에 대하여 유구가 ‘일본과 무관함’을 내보이려 한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해 왔다. 더구나 1821년 8월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구인’ 20명이 일본 사쓰마

61) 德永和喜, 앞의 책, 251~252쪽; 민덕기, 앞의 책, 280쪽; 渡邊美季, 「朝鮮人漂着民の見た1662-63年の<琉球>-東アジア海域交流の一側面-」, 『해양의 세계에서 바라본 동아시아-유구·오키나와의 관점』(제5회 오키나와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유구·오키나와학회, 2010, 69쪽, 82~83쪽. 그런데 1802년 유구에 표착한 文淳得이 유구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피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내용이 그의 구술을 적은 표해록(漂海錄)에 남아 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인 통제를 위한 법 규정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격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丁若銓 지음, 문순득 구술, 김정섭 옮김, 『漂海始末』(신안문화원, 『柳菴叢書』, 2005), 69~101쪽; 최성환, 앞의 논문, 145~155쪽.

표류민으로 위장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일본인’의 표류로만 인식해 왔다. 실제로 유구인이 일본 사쓰마 사람들과 동승하여 항해를 한 예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한 1821년 8월 ‘유구인’의 편승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구와 일본 사이의 종속관계를 중국과 조선에 은폐하기 위한 유구의 정책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사례가 또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은 이른바 제주인의 출신지 위장과 비교되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한다.



【ABSTRACT】

Ryukyuan Who Landed at Cheju Island and
Claimed to be Japanese:
The 1821 Castaway Incident

Chung Sung il*

In the eighth month of 1821, twenty “Ryukyuan” who landed at Cheju island together with people from Satsuma domain in Japan identified themselves falsely as “Japanese.” As “Japanese,” they were repatriated along the sea route to Nagasaki via Tsushima. Two months earlier, in the sixth month, six Ryukyuan who had landed at Cheju island were recognized as such and repatriated along the overland route through China. These two incidents in the same year and in the same area involved castaway “Ryukyuan,” but the Choson government’s treatment of these “Ryukyuan” varied.

Earlier research regarding Koreans who landed in Ryukyu has emphasized only Ryukyu’s emphasizing that their country “had no relations with Japan.” In addition to distinguishing Korean castaways who had landed in Ryukyu from local residents, research has also emphasized the policies of the Ryukyuan government in which Korean castaways were not to see Japanese *katakana* or

* Kwangju Women's University

hiragana and were not to hear Japanese songs or Japanese personal names.

However, as may be seen in the 1821 incident, that twenty “Ryukyuan” pretended to be people of Satsuma domain has now come to light. Accordingly, in the future, when explaining the Ryukyu government’s policy of concealing from Qing China and Choson its multi level relations with Japan, this example will be another useful proof. Further, this is an interesting case for comparison with instances of Cheju islanders concealing their place of residence.

【key words】

Choson, Cheju, Ryukyu, Japan, Tsushima, Satsuma, Amami Oshima, drifting, castaways